

# 軍服飾의 記號學的 分析 — 舊韓末期의 陸軍服을 中心으로 —

李成熙·韓明淑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과, 교수

## A Semiotic Analysis on the Military Uniform — Focusing on the Last Period of Korean Empire —

Seoung-Hee Lee and Myung-sook Han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ang Myung Women's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1. 軍服飾의 Langue와 Parole
I. 序 論	2. 軍服飾의 外延/內延 體系
II. 理論的 背景	3. 軍服飾의 系列體와 統合體
1. 記號學의 主要概念	IV. 結 論
III. 軍服飾의 記號體系 分析	參考文獻

### Abstract

This thesis, based on the semiotic theory, compared the meaning of sign which is a grounding the military uniform of the category of clothings as a cultural sign for formative relation.

As for the scope of study, I made the Army's uniforms during the last period of Korea Empire from 1895 to 1909 as an object of my thesis and analysed their document and photographs.

As a result of analyse of military uniform during by semiotical application, I made clear that it has a role of signal by underlying signal's aspect of sign, and it is a sign which could symbolize the class, national and periodical distinction.

## I. 序 論

인간이 창조적 동물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記號들을 엮어, 意味있는 象徵體로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존재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우리는 記號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며, 記號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意思疏通을 하고, 記號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을 꿈꾼다.<sup>1)</sup>

服飾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文化的 產物의 하나이며, 하나의 記號 즉 象徵이라고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視覺을 가지고 복식에 記號學적 접근을 시도하여, 이론의 기본인 기호의 의미와 형식의 체계에 군복을 대비하여 군복의 의미, 전달작용과 구조에 대해 분석·고찰하여, 복식에서의 기호의 영역구분과 의미를 체계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軍服飾이 記號學的 側面에서 가장 可視的 指名度가 分明하여 그 접근이 용이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分析的 研究에 임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호학이론은 Ferdinand de Saussure의 構造主義 기호학의 기본개념과 Roland Barthes의 記號體系 및 Charles Sanders Peirce의 記號 類型과 記號分類를 위주로 하였다. 또한 복식을 인간생활의 한 분야로서 文化的 중요한 요소로 보고, 文化記號論의 이론을 參考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복식의 직접적인 적용방법은 韓明淑의 복식의 의미기능단위에 따른 복식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우리나라 陸軍服중 舊韓末期의 군복식으로 1895년 부터 1909년 사이에 착용된 군복식을 대상으로 文獻과 寫眞 자료를 통해 分析을 하였다.

舊韓末期는 4단계로 1단계 일본군제 영향기(1895~1897), 2단계 러시아군제 영향기(1897~1900), 3단계 자주적 군제 영향기(1900~1907), 4단계 일본군제 영향기(1907~1909)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분류는 군복식의 기호체계와 의미과약을 명확히 해주는데 유효하다는 利點이 있다.

## II. 理論的 背景

### 1. 記號學의 主要 概念

#### 1) Langue와 Parole

기호학은 Saussure의 言語學的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기호의 恣意性을 주장하고, 이는 기호의 의미 부여와 기호작용부로 분절되는 것임을 가정하였다. 또한 langue와 parole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Langue와 parole의 구별은 대체로, 우리가 영어에서 단순히 language라고 부르는 抽象的인 언어체계와 그 언어의 話者가 그날그날 상황에 처해서 행하는 發話 즉, 우리가 speech라고 부르는 것과의 구별에 상응한다.<sup>2)</sup> Langue와 parole에 대한 차이를 비교 대조해 보면 다음

1)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p. 12.

<표 1> Langue와 parole의 비교

량	그	빠	를
사회 규약		개인적 실현	
언어 능력(Competence)		언어 운용(Performance)	
체계		실현	
잠재적인 것		표현된 것	
추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	
영상이나 개념의 약속체계		화주에 의한 약호의 실현	
규칙의 체계		언어의 규칙을 구사하는 양식	

<표 1>과 같다.

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langue와 parole의 구분이 가능하여, 복식 품목의 측면과 사회 제도 속에서의 관습, 규범으로서의 복식을 입는 격식을 langue라 할 수 있고, 개인이 실제로 입음으로써 직접 경험 관찰 할 수 있는 복식현상을 parole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즉, 制服이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langue의 측면이, 그에 비해 自由服을 입은 사람은 parole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sup>

## 2) 記票와 記意

기호에 대한 정의의 범위에서, Saussure는 언어기호를 하나의 심리적 실체로 보고 그의 구조적 대립 개념을 활용하여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말의 外面的 形式, 즉 소리면을 記票(signifiant)라 하고, 그 내용, 즉 뜻의 면을 記意(signifie)라고 하였다. 그는 기호의 뜻을 概念(concept 記意)과 聽覺 映像(image acoustique 記票)의 조합을 기호라고 하였다.<sup>5)</sup>

언어는 인간이 의사전달을 위해 어떤 聽覺의 映像이 반드시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音聲의 기호를 사용하는 반면에 복식은 의사전달을 위해 어떤 시각적 영상이 어떤 개념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外形의 기호를 사용한다. 즉 복식에서는 感覺으로 知覺되어 보이는 면, 즉 복식의 형태를 記票라 하겠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면을 記意라고 한다.<sup>6)</sup>

이를 韓明淑은 복식에 적용하여 복식의 2중구조를 <그림 1>과 같이 표시하였다.

## 3) 外延(denotation)과 內延(connotation)

언어란, 實體의 지탱을 받아 실체를 통해 실현되는 抽象的 形式이라고 본 Saussure의 이론에 대해 Louis Hjelmslev는 형식(form)과 實體(substance)라는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그 개념을 확대시켰다. 즉 Saussure의 언어기호는 外延기능에서 머물렀다고 할 수 있는데

2) T. Hawkes, 전제서, p. 24.

3) 한명숙, 전제서, pp. 51-56.

4) 한명숙, 상제서, p. 57.

5) signifiant과 signifie는 불어 signifie(의미한다)라는 동사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형으로 의미하는 것, 의미 지워지는 것의 뜻이다. 이는 현재 記票/記意, 能記/所記, 記號表現/記號內容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용어의 통일은 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記票/記意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6) 한명숙, 전제서, p. 57.



<그림 1> 韓明淑의 服飾의 記號 2중분할

Hjelmslev의 규정은 1차적 기호내용을 넘어서 比喩的·象徵的 意味로까지 확대하였다.<sup>7)</sup> 롤랑 바르트는 이러한 Hjelmslev의 외연, 내연의 의미를 차용하여 완벽하게 만들었다.

복식이란, 抽象的인 형식이 실체의 지탱을 받아 실체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 형태를 보고 다시 추상적 형식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다. 形이 기호의 內延的 意味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 外延은 대부분 客觀的, 具體的이어서 모호한 대가 없으며 이는 기호속의 記意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辭典的 意味가 되며, 內延은 主觀的 價値로 解釋되며, 文化적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 것이다. 즉 같은 기호라도 문화마다 다르게 된다.

#### 4) 系列體(paradigm)와 統合體(syntagm)

系列體는 어떤 공통성을 지닌 기호 한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정기호들이 범주별로 분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8)</sup>

즉, 복식이라는 커다란 系列體가 겉옷의 系列體, 속옷의 系列體, 모자 系列體, 양말 系列體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系列體는 공통성과 고유특성 혹은 가치를 지닌 기호단위들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

統合體란 系列體에서 선택한 여러 다른 기호들의 조합이다.

즉, 속옷, 겉옷, 양말, 모자, 구두, 악세사리를 자신이 생각한대로 조합해서 입는 것이다.

統合體의 단위를 얻기 위해서는 절단(decoupage)작용을 해야 하고, 系列體의 단위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분류(lassement)를 해야만 한다. 또 단위들이 절단되면 統合體의 연결법칙을 세워야 한다. 어느 統合體든지 특정한 방식으로 기호들을 선택, 조합한다. 이 특정한 방식에 관습적 원리가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복을 갖추어 입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입는 것이나 결국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다.

#### 5) 記號의 분류

Peirce는 기호와 대상과의 관계를 3분법적으로 분석하여 분류하였다.<sup>9)</sup> 이를 類像 icon, 指標 index, 象徵 symbol으로 칭하였는데 각각의 분류를 보면, 類像은 대상체와 유사한 기호로 대상체와 비슷하게 보이거나,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증명사진, 상형문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指標는 그 대상에 의해서 실지로 영향을 받고 그 사실에 의하여 그 대상의 기호로서 가능한

7) 소두영, 「기호학」, (서울: 인간사랑, 1991), p. 368.

8) 김경용, 전계서, p. 95.

9) 소두영, 전계서, p. 49-57.

것을 말한다. 아주 직접적인 기호로써 어떤 문화적 지식없이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指標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그 대상에 기울이게 한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 도로교통표지, 간판, 音節, 교복, 제복 등이 指標의 기능을 한다.

象徴이란 어떤 범규에 의하여, 보통은 일반관념에 의하여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을 表意하는 기호이며, 그 경우 법칙이나 일반관념의 연합은 그 대상을 表意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를 뜻하며, 기호와 대상체 사이에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 없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외에 다른 유럽학자들은 象徴에 대해, 象徴과 그 대상이 하나는 정신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물질계에 속한 것으로 그 두 事項이 類推關係에 있다고 공통 정의하였다.<sup>10)</sup>

이상과 같이 넓은 의미의 記號에는 대상과 그 기호표현의 관계에 있어서 指標는 인접성에, 記號는 직접성에, 類像을 유사성에 그리고 象徴을 유추작용에 각각 그 특징이 있는 것이 기호의 네가지 종류였지만, 記意와 記票사이에는 아무런 자연적,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자의성에 의하여 無然的이며, 다만 인위적으로 마련된 略號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 경우 이를 좁은 의미로 記號라고 한다.<sup>11)</sup>

이 네가지 종류 이외 구별될 것이 信號이다. Luis Prieto는 넓은 의미의 記號를 크게 指標와 信號로 구분하여 指標를 직접 지각할 수 있는 事象으로, 지각할 수 없는 다른 事象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리켜 주는 事象이라고 정의하고 信號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人工的 指標라고 규정하였다.<sup>12)</sup> 즉, 이는 어떤 정보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직접적인 인공적 지표이다.<sup>13)</sup>

또한 복식은 記號로서 信號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 信號이면서 동시에 象徴으로서 표현적이고 물질이 아닌 무엇인가를 전하는 역할로서의 그 자체가 복식이다.<sup>14)</sup> 그러나 服飾品目 중 制服은 Perice와 Prieto의 구분과 같이 指標의 記號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人工的 指標로서 信號라 볼 수 있다.

### Ⅲ. 軍服飾의 記號體系 分析

#### 1. 軍服飾의 Langue와 Parole

歐韓末 당시 軍服規制로 내려진 勅令은 langue의 측면으로 이는 法的 規制로 복장의 체계를 설명하여, 실제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잠재적이며, 추상적인 약속체제인 것이다. 정치적 세력에 의한 자율성이 배제된 강제적이며 제도적인 의복 규범이다. 또한 勅令과 같은 복식 규제는 code가 되어 각각의 단계마다 복식품목의 記號를 결합한다.

즉, 軍帽, 軍服, 外套, 그에 해당하는 標識章과 디테일의 결합은 이러한 code에 의해 결합하여 하나의 착용형태인 parole을 형성한다.

軍人 한사람 한사람의 착용형태나 계급마다의 착용상태는 개인적으로 표현된 parole이라

10) 소두영, 상계서, p. 158.

11) 소두영, 상계서, p. 162.

12) Luis Prieto, "La Semiologie" in le Language. Encyclopedie de la pleiade(Paris:Gallimard, 1968), p. 95-96.

13) 소두영, 전계서, p. 167.

14) 한명숙, 전계서, p. 35

할 수 있으나, 軍人이라는 신분과 軍服이 가진 제복으로서의 역할은 개개인의 실현을 무시하며, 집단 소속의 한 단위로만 인식되며 귀속감을 강조하여 하나의 의식으로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진정한 개인적 실현의 자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軍服은 langue의 측면이 강한 制服이기는 하나, 시대나 각 나라마다의 비교로 보면, 시대별 langue에 의한, 각 나라마다의 langue라는 측면으로써 각각의 parole은 다르며, 그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 2. 服飾의 外延/內延 體系

外延은 1차적 의미로 대표적 혹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할 의미를 나타내고, 內延은 2차적 의미로 그 복식을 통해 느끼게 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Saussure가 언급한 記票/記意의 기호체계를 발전시킨 Roland·Barthes의 外延/內延의 기호체계로 軍服飾을 분석해 보았다.

이 분석은 Roland·Barthes<sup>15)</sup>가 “Systeme de la Mode”에서 교통부호에 대한 기호의 의미체계를 분석한 것을 예로하여, 軍服飾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外延的 체계에서 記票는 복식품목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소재, 형태, 색상, 단추, 수식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記意는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의미와 기능이 된다.

이 外延的 체계가 內延의 記票가 되어 하나의 복식품목, 즉 軍帽(禮帽와 常帽), 軍服(禮衣, 常衣), 外套가 되며, 각 시대의 軍服飾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外延的 기호들의 有無, 형태변화에 따라 내연적 기표가 달라지며 각각의 4단계의 시기 즉, 1단계 일본군제 영향기, 2단계 러시아군제 영향기, 3단계 자주적 군제 영향기, 4단계 일본군

발화된 부호	Sr /빨간색은 정지를 말하는 기호이다/: 문장	Sd “빨간색은 정지를 말하는 기호이다/: 명제내용	
	실제 부호	Sr 빨간색에 대한 인지	Sd 정지를 의미한다.
착용된 군복	Sr 복식품목으로 구성되어 이야기하게 되는 복식의미	Sd 군복의 사회적·문화적·상징적 의미	
	실제 군복	Sr 복식품목의 구성요소	Sd 각 요소의 의미·기능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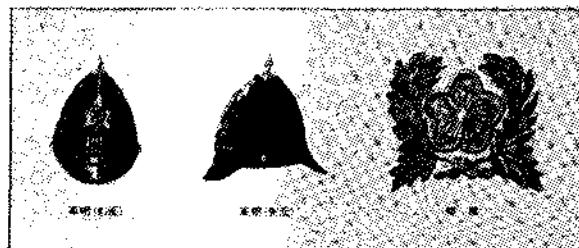
15) Roland Barthes, 전제서, p. 23.

제 영향기를 나타내는 記號가 된다.

舊韓末의 軍服飾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표 2>~<표 5>와 같다.

<표 2> <1단계> 일본군제 영향기의 軍帽 외연/내연 체계

분 류		외연적 기호 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 기호 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軍帽	소재 색상	· 옴 · 흑색	· 가볍고 부드러움 · 권위, 위엄, 정막, 침묵, 견실, 장중 함, 지조	· 검은색 옴 · 으로 된 투 구형 모자.	· 일본군제 영향기의 軍帽.
	형태 턱끈 차양	· 투구형 · 정상에 화 살촉 모양의 황금 적새 · 흑색가죽 · 흑색가죽	· 보호, 유지 · 남성다움, 힘  · 가죽: 사나이다움, 내구성, 유연성, 보 호력		
	색상 형태	· 은색 · 무궁화가지 + 이화장  · 무궁화가지 + 이화장 + 은색별	· 청렴, 결백, 검소 · 우리나라 ·李씨 朝鮮의 궁중 문장 · 은색별: 자유와 평 화	· 은색의 무 궁화가지 모 양의 모표	* 계급표시 · 위관급  · 장관, 영관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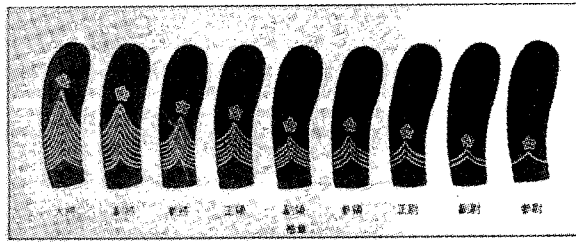
<표 3> <2단계> 러시아군제 영향기의 軍服 禮衣 의연/내연 체계

분 류		외연적 기호 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 기호 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軍服	禮衣 (上衣)	소재 색상  칼라  袖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옴</li> <li>· 흑색</li> <li>· stand collar</li> <li>· 깃부분: 홍색 옴바탕에 금색 자수</li> <li>· 홍색 옴띠 (소매 밑단)</li> <li>· 人형 황금색 띠</li> <li>· 人형 띠의 수</li> <li>· 무궁화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볍고 부드러움</li> <li>· 권위, 위엄, 정막, 침묵, 견실, 장중함, 지조</li> <li>· 권위, 절도, 거리감</li> <li>· 홍색: 금색 자수를 돋보이게 함</li> <li>· 수에 의한 구분</li> <li>· 우리나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색 옴으로 된 stand collar와 뒤에 반달형 띠 장식, 소매에 人형 袖章이 매듭 단추로 여밈을 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군제 영향기의 禮服 上衣</li> </ul>
	(上衣)	여밈 부분 밑단 단추  주머니  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흑색 편직 띠</li> <li>· 흑색 실 매듭으로 끝부분 무궁화 모양으로 끈 장식</li> <li>· 중앙: 속불임 주머니 밑부분: 속불임 주머니</li> <li>· 양어깨에서 밑단까지 흑색 띠 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궁화; 우리나라</li> <li>· 실매듭장식; 禮衣의 장식적인 면 강조</li> <li>· 권위, 위엄의 장식으로 禮衣의 우아함 돋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군제 영향기의 禮服 上衣</li> </ul>



<표 3> 계속

분 류			외연적기호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기호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달형으로 부착 · 아래쪽 좌우에 화살촉모양의 흑색띠 부착 · 좌우측 부분 트임	· 화살:남성다움, 힘, 전쟁  · 도금휴대가 용이하게 되는 기능		



<표 4> <3단계> 자주적 군제 영향기의 軍服 常衣 외연/내연 체계

분 류			외연적기호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기호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軍服	常衣	소재 색상	· 음 · 흑색 · 다색  · 홍색	· 애상이 없는 느낌 대지, 영혼의 죽음 · 활동, 맹령, 투쟁, 성심, 야만 · 무궁화; 우리나라 · 황금색; 부귀, 권력 불변, 영원, 신성한 빛 · 황금색 단추를 돋 보이게 함		· 자주적 군제 영향기의 군복 常衣 현병 기병
		형태 단추	· 싱글형 · 무궁화 황금색 단 추 7개			
		여밈 부분	· 홍색 옴띠 (흑색 옴띠)			

<표 4> 계속

분 류			외연적기호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기호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칼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탕 위에 부착)</li> <li>· stand up collar</li> <li>· 가장자리 홍색 용띠</li> <li>· 깃부분: 온색별 수놓음</li> <li>· 별의 수 3개 2개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위, 절도, 거리감</li> <li>· 앞길의 여밈띠와 통일감을 줌</li> <li>· 자유, 평화</li> <li>· 수에 의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등표시 장관급</li> <li>영관급</li> <li>위관급</li> </ul>
		袖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형 황금색 띠</li> </ul>			

制服常衣(兵也軍符)

<표 5> <4단계> 일본군제 영향기의 軍服 外套 의연/내연 체계

분 류			외연적기호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기호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軍服	외투 (장교)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li> <li>· 흑색</li> <li>· W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미거나 풀어서 모양을 낼 수 있는 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vertible collar, 더블 단추 여밈으로 된 흑색 용의 외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군제 영향기의 장교용 외투</li> </ul>
		칼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vertible collar</li> <li>· 황금색 금속제 단추</li> <li>· 좌우 각각</li> </ul>			

<표 5> 계속

분 류		외연적기호체계 (denotative semiotic)		내연적기호체계 (connotative semiotic)	
		기 표	기 의	기 표	기 의
軍 服	외 투	뒤	5개 · 허리조임띠 · 위에 4개의 단추 부착 · 절개부분에 3개의 플라 스틱제 속 단추부착	· 기능적인 단추	· 일본군제 영향기의 군복
		袖章	· 띠 부착 · 띠의 색 홍색 녹색 황색 자색 유록색(진한 녹색) 청색 · 황금색 금속제 단추 · 단추의 수 3개 2개 1개		
				· 수에 의한 구분	· * 관등 표시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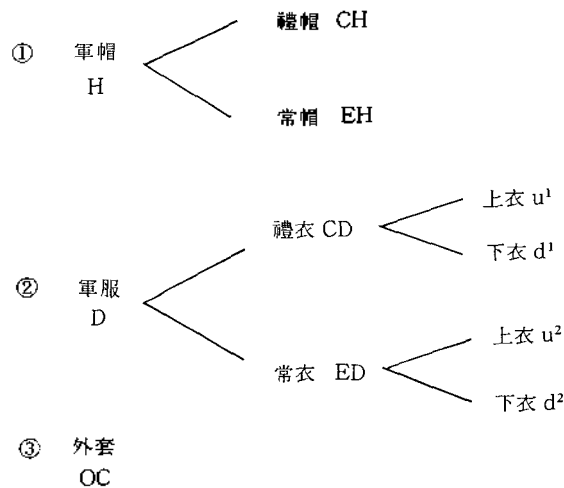


### 3. 軍服飾의 系列體와 統合體

系列體와 統合體는 軍服飾의 체계적 분석력을 제공시키는 개념으로서 즉 軍服飾은 각각의 服飾品目要素들로 나타나며, 그 구성요소의 集合體(統合體)인 것이다. 軍服飾의 系列關係와 統合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服飾品目에 알파벳 부호를 표시하였다.

즉, 軍帽는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므로 Hat의 첫글자 H로, 그에 해당되는 禮帽는 Ceremonial Hat으로 CH로, 常帽는 Everyday Hat로 EH로, 軍복은 Dress의 첫글자 D로, 禮衣는 Ceremonial Dress의 CD, 常衣는 Everyday Dress의 ED로 표시하였고, 각각의 禮衣, 常衣의 上衣와 下衣는 Upper dress, Down dress로 소문자 u, d로, 禮衣의 上衣와 下衣는 u<sup>1</sup>, d<sup>1</sup>, 常衣의 上衣와 下衣는 u<sup>2</sup>, d<sup>2</sup>로 하였다. 외투는 Over Coat의 OC로 표시하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軍服飾의 系列關係

이러한 복식품목을 갖추어 입었을 경우, 禮衣는 CH /OC {CD (u<sup>1</sup> /d<sup>1</sup>)}가 되며, 常衣는 EH /OC {ED(u<sup>2</sup> /d<sup>2</sup>)}이 된다.

이로서 統合體를 이루게 되는 기호체는 같은 품목 H와 H가 D와 D, u와 u, d와 d는 서로 자리를 대신할 수 있으며 대립관계가 되며, 制式에 따라 禮衣와 常衣를 갖추어 입는 것은 용도에 맞는 統合關係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V. 結 論

우리나라 舊韓末의 軍服飾을 記號學 이론에 적용하여 그 記號的 의미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軍服飾의 langue와 parole의 적용은 記號와 意味의 체계정립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舊韓末의 軍服飾은 陸軍服裝規制라는 制式 勅令으로 制式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칙령은 langue로 軍帽, 軍服, 外套와 그에 해당하는 標識章과 디테일을 결합시키며, langue에 의해 결합된 착용형태는 parole이 된다.
2. 軍服記號의 의미분석에 外延/內延 체계는 그 의미설정을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군복식의 기호체계는 복식품목을 이루는 요소 그 자체가 記票가 되며 복식을 착용한 상태가 記意가 된다. 이를 더욱 심층분석하면 복식품목 그 자체를 이루는 物質的 構成要素와 각 요소의 意味機能이 각각 1차적 外延體系의 記票/記意가 되어 복식 자체로 군인의 역할을 지시하는 것으로, 나아가 階級象徵의 意味單位가 된다.
3. 系列體와 統合體는 체계적 분석력을 제공시키는 개념으로 군복식의 복식품목요소는 系列體로 나타나며, 그 구성요소들의 집합은 統合體인 것이다.  
舊韓末의 군복식은 軍帽(禮帽와 常帽), 軍服(禮衣와 常衣), 外套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복은 또한 上衣, 下衣로 구분된다. 이에 각 품목에 알파벳 부호를 주어 군복식의 계열체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식화 하면, 禮衣는 CH/OC {CD (u<sup>1</sup>/d<sup>1</sup>)}가 되며, 常衣는 EH/OC {ED (u<sup>2</sup>/d<sup>2</sup>)}이 된다.  
즉 이 공식은 禮衣, 常衣를 갖추어 입은 統合體의 기호로 볼 수 있으며 군복식 記號는 각각 복식단위의 統合體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4. 舊韓末 군복식에 있어 意味作用은 앞의 기호학 기본개념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군복은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하나의 Signal로서 지각되고 군인의 역할의미를 인지하게 하며, 계급과 兵科 구분의 다양한 標章과 修飾은 상황적 맥락안에서 즉 사회적·시대적·정치적·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象徵的 意味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기호학을 적용하여 舊韓末의 軍服飾을 意味分析하여 본 결과, 군복은 Sign으로서 Signal의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복식 자체가 Signal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한 계급과 국가와 시대적 구분을 象徵할 수 있는 記號임을 糾明하였다.

## 參考文獻

- 軍人服制, 서울:국방부, 1980.
-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민음사, 1994.
- 陸軍服制史, 서울:육군본부, 1980.
- 이재일, 박춘순, “우리나라 기너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복식, 제24호, 한국복식학회, 1994.
- 소두영, 기호학 이론, 서울:인간사랑, 1991.
- 전성기, 소쉬르 記號學의 觀點, 서울: 예술과 비평, 1986.
- 鄭寅美, “기호론에 의한 시각전달디자인 Massage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河龍得, 韓國의傳統色과 色彩心理, 서울:명지출판사, 1989.
- 한명숙, “한국복식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A.N. 화이트헤드, 상징작용과 그 의미와 효과, 서울:서광사, 1989.
- Barthes, Roland, *Systeme de la Mode*, 한명숙 譯, 유행과 문자의상체계, 서울:경춘사, 1994.
- Biren, Faber, 색채심리, 김화중 역, 2권, 서울:동국출판사, 1993.
- Descamps, Marc-Alain, *Psychosociologie de la mode*, 유행심리, 이연숙 譯, 서울:동국출판사, 1993.
-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서우석 譯, 기호학 이론, 서울:문학과 지성사, 1985.
- Focus, J.B., *Comprendre Le Structuralism*, 김현 譯, 구조주의란 무엇인가, 서울:중앙신서, 1985.
- Graves, Maitland, 디자인과 색채, 배만실 譯,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6.
- 조류쥬 나타프, 상징, 기호, 표식, 김정란 譯, 서울:열화당, 1987.
- Louis, Alison, *The Language of Clothes*, 유태순 譯,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1986.
- Terence Hawkes, *Structualism and Semiotics*, 오원교 譯, 구조주의와 기호학, 서울:신아사, 1986.
- Toussaint, Bernard, *Qu'est-ce que la Semiologie?*, 윤학로 譯,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청하, 1987.
- 也上嘉彦, 「詩學と文化記號論」, 李奇雨 譯, 「시학과 문화기호론」, 서울:중원문화사, 1984.
- Berlo, D.K.,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Practice*,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1960.
- Prieto Luis, "La Semiologie" in *le Language*, Encyclopediede la Pleiade, Paris: Gallimard, 1986.
- Samovar, Larry, Portor Richard, *Interculture Communication, :A Reader*, Belmonto, Cal.: Wadworth Pulishing Company, 1972.
- Cooper, J.C.,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etional Symbols*, 이윤기 譯,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까치글방, 1994.
- Ducrot, Oswald and Tzventan Todorov, *Encyclopedic Dictionary of The Sciences of Language*,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譯, 記號學事典, 서울:우석출판사, 1990.